"올해 호남 가구시장 점유율 1위 재탈환"

보루네오가구 새해 '지속성장 기반구축의 해' 선포

디자인팀 강화…천연 옻가구 생산 돌입

2016년엔 글로벌 대표 가구회사 도약

안 섭 대표이사

국내 대표 가구제조업체인 보루네오가구(대표 빈일건·안섭)가 새해를 '지속성장 기반구축의 해'로 선포하고 나섰다.

보루네오가구는 지난해 말 창업 50주년을 맞는 2016년의 글로벌 대표가구회사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봄 시즌 가구 시장을 겨냥한 활기찬 행보와 함께 새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주력사업인 가정용 가구는 최근의 웰빙·친환경 트렌드를 넘어 천연 친환경 개념을 도입한 새 제품군을 개발해, 승부를 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천연 옻의 핵심성분인 '우루시올'을 이용, 세계 가구업계 최초로 옻가구 대량 생산에 돌입했다. 첫 제품은 올 봄 시장에 선보인다. 디자인연구소 강화를 통한 제품 혁신에도 적극 나선다.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세우고 기술개발팀을 신설, 천연 친환경 시리즈와 고기능성 의자, 사무용 시스템 가구, 아파트 가구 개발을 추진 중이다.

세계적 가구업체인 이케아(IKEA)의 한국시장 진입에 대비, 모든 제품을 DIY(DO It Yourself)로 설계를 변경한다는 계획도 만들었다. 디자인 특화를 위해 가구 디자인 분야 전문가인 김재열 인천 예총 회장을 경영고문으로, 신응선 목원대 교수를 연구소장으로 영입했다. 또 지난해 차세대 사무환경 시스템 가구 '유피스 3'를 개발·완료하고 현재 인천 본사에 마련중인 대규모 사무용 가구 전시장 비즈니스 팰리스에서 이달 내 공식적인 신제품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유통망 확대에도 박차를 가해 전국적으로 10여 곳의 대리점을 추가 확보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기존 유통인력을 흡수, 대리점 확장과 신규 개설을 진행중이다.

보루네오가구는 지난해 전년 대비 세배 수준인 600억원의 아파트 가구를 수주하는 등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아파트 가구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사를 두고, 지역건설사에 대한 영업을 강화했다.

안섭 대표이사는 "광주·전남지역에서 보루네오가구 매출이 최근 증가세에 있다"며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을 없애는 활발한 영업활동으로 과거 호남가구시장 점유율 1위를 재탈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기아차 K시리즈 맘에 안들면 바꿔드립니다"

차량교환 파격 마케팅

기아자동차가 이달 K시리즈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차량교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K시리즈 차량 교환 프로그램'은 이달 말까지 기아차 지점이나 대리점을 통해 K3, K5, K7, K9을 구입한 고객이 원할 경우 한차례 같은 차종이나 다른 차종으로 교환해주는 고객 만족 행사다.

행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시리즈 차량 구입 계약시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차량 등록 후 최소 25일, 최대 30일 운행과 운행주행거리 500~2000㎞ 이하 차량을 기아차 지점이나 대리점에 반납해야 한다. 사고 차량은 교환이 불가능하다.

기아차 관계자는 "고객들이 차량 구매 시 어떤 차가 본인에게 더 어울리고 유용할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며 "K시리즈의 품질에 대한 자신감과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만족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아차는 지난해 12월 자동차 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기업'(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받았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건설·해운·조선업 올해 더 어렵다

구조조정 기업 늘어날 듯

장기간 침체에 빠진 건설·해운·조선업이 올해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째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 업계에서는 새해 들어 추가로 수술대에 오르거나 팔려나가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울한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수익성을 높이고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 중이다.

건설업계의 새해 전망으로는 몇 년째 '암울하다'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다.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가 도무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공공공사 발주마저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형 건설사들은 해외 시장에 집중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지만 자력 해외 진출이 어려운 중견·중소업체들은 국내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해운업계는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타결과 중국 경제의 8%대 성장 전망에 따라 올 한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또 하나의 주력 시장인 유럽의 회복 여부가 불투명하고 선박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내 해운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선박을 다 만들어 인도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기 전 발주한 새 화물선들이 계속 해운사들의 어깨를 짓누를 전망이다.

불과 3~4년 전만 해도 t당 300~400달러에 불과하던 선박용 벙커C유 가격이 최근 600달러대로 올랐다는 점도 큰 문제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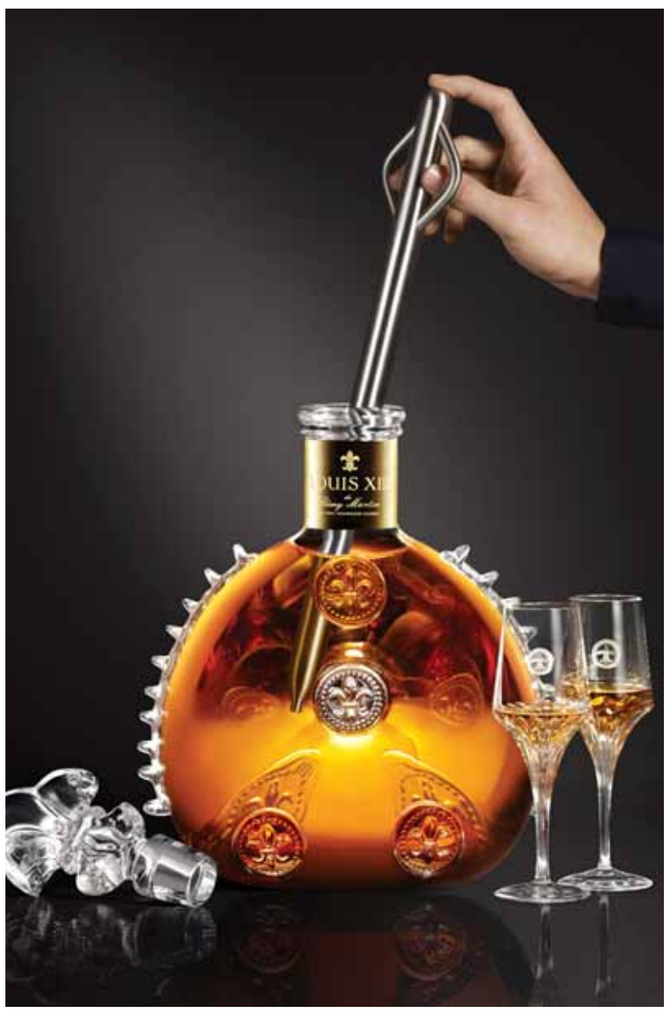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내달 1일까지 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포상 부문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유통 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 공로자, 지원 우수단체다.

접수는 7일부터 2월1일까지 방문·우편·온라인(posang.kbiz.or.kr)으로 하면 된다.

시상식은 5월 셋째 주에 열리는 전국중소기업인대회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biz.or.kr)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한병에 3200만원

롯데호텔서울은 오는 11일부터 2월 9일까지 설을 맞아 최고급 선물세트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전세계 100병만 출시한 '루이 13세 제로보암(LOUIS X III LE JEROBOAM) 리미티드 에디션'은 국내에 단 2병만 배정돼 이번 설에 롯데호텔서울이 판매한다. 가격은 3200만원.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美중형차 판매 두달 연속 1위

지난달 3만2천대 팔아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중형차 시장에서 지난해 11월과 12월 2개월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미국 중형차 시장에서 쏘나타 2만826대, K5 1만2008대 등 총 3만2834대를 판매하며 2개월째 수위를 차지했다. 2위는 3만1000여대를 판 도요타가 차지했다.

미국 중형차 시장은 자동차 메이커들의 최대 각축시장. 도요타 캠리, 닛산 알티마, 혼다 어코드 등 20여 종에 이르는 대표 모델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중형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은 쏘나타와 K5의 우수한 디자인과 뛰어난 상품성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전체 판매에서도 현대·기아차는 총 38만3004대로 혼다, 닛산 등을 제치고 도요타(40만4886대)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2월 판매실적이 전월 대비 8.1% 증가하는 등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어 올해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그 어느 시장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미국 중형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2개월째 판매 1위를 달성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올해에도 미국시장에서 쏘나타, K5 등 중형차종을 중심으로 판매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장기불황에 '사실상 실업' 390만명

취업준비생 58만명…1년전보다 10% 급증

'사실상 실업'에 해당하는 사람이 39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준비생 수가 1년 전보다 급증했다.

4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로는 사실상 실업자가 지난해 11월 389만7000명에 달했다.

'사실상 실업'은 통계청의 공식 집계에 들어가지 않지만, 실업과 마찬가지인 사람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여기에는 ▲통계청 분류상 공식 실업자 69만5000명 ▲고시학원 · 직업훈련기관 등을 통학하는 취업준비생 21만9000명 ▲비(比)통학 취업준비생 36만3000명 ▲'쉬었음'에 해당하는 비경제활동인구 102만6000명 ▲구직단념자 19만3000명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98만9000명이 포함된다.

사실상 실업자(11월 기준)는 경기악화 탓에 급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하기 전인 2007년과 2008년에 350만명을 밑돌았지만 2009년(389만7000명), 2010년(400만1000명), 2011년(394만6000명) 등이다.

취업준비생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취준생'은 11월 현재 58만2000명으로 1년 전(53만명)보다 9.8% 증가했다. 이들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공식적인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실업과 다르지 않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527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	12	22	32	33	42	38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032,386,366	13
2	5개숫자+ 보너스 숫자일치	77,132,315	29
3	5개 숫자 일치	1,137,183	1,967
4	4개 숫자 일치	50,000	83,212
5	3개 숫자 일치	5,000	1,287,504